

# 영혼의 눈병 : 요한 크리소스톰과 구제의 녹내장 치료

---

**배정훈**

(고신대학교, 조교수, 교회사)

- I. 서론
- II. 영혼의 눈병
- III. 구제의 카우칭(Couching) 수술
- IV. 영혼의 눈의 메타포
- V. 결론

## [초록]

최근 학자들은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C.E. c.349-407)의 저술과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병과 치료의 메타포에 주목하며 새로운 연구를 시도했다. 이들은 이러한 메타포 이면에 그리스-로마 철학과 의학에서 지속되어 왔던 ‘영혼의 의사’ 전통이 있음을 발견했고 요한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추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고대 철학적 치료(ancient philosophical therapy)이론이 요한의 구제사상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고대 후기에 요한만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도움을 호소한 교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사상 전반에 퍼져있는 영혼 치료학(psychagogy)이 구제사상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대 철학과 의학 배경에서 기독교적 나눔에 대한 요한의 이해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특별히 영혼의 눈병과 치료에 대한 그의 언급에 주목하고자 한다. 요한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그의 회중들을 하나님의 안과병원(Divine ophthalmic hospital)으로 인도한다. 본 논문은 요한의 『마태복음 20번째 설교』(*In Matthaeum homiliae* 20)에 초점을 둔다. 요한에 따르면 탐심은 영혼의 눈의 병, 즉 녹내장이다. 이 병은 결코 가볍지 않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영혼의 눈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고칠 수 있다. 나눔은 강력한 영적 안과수술, 즉 카우칭 수술이다. 이는 누구든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영혼의 녹내장과 치료에 대한 요한의 담론은 상당히 체계적이며 세속 철학자와 의사들의 치료 담론과 실천을 대체한다.

**키워드:** 초대 기독교, 요한 크리소스톰, 영혼의 눈, 녹내장, 카우칭 수술, 구제

논문투고일 2023.01.09. / 심사완료일 2023.02.27. / 게재확정일 2023.03.02.

## 1. 서론

최근 학자들은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C.E. c.349-407)의 저술과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병과 치료의 메타포에 주목하며 새로운 연구를 시도했다. 이들은 이러한 메타포 이면에 그리스-로마 철학과 의학에서 지속되어 왔던 ‘영혼의 의사’ 전통이 있음을 발견했고 요한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추적하였다.<sup>1</sup> 대표적인 연구자는 웬디 마이어(Wendy Mayer)이다. 그녀는 요한이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를 다루는 총체적인 의사였으며, 그의 저술은 기독교화된 의학 논문이자 치료서라고 주장했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고대 철학적 치료(ancient philosophical therapy)이론이 요한의 구제사상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sup>3</sup> 국내외적으로 요한의 부와 가난 연구는 주로 신학적, 금욕주의적,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졌다.<sup>4</sup>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6682).

1 이에 대한 비평적인 개관은 다음을 참고. 배정훈, “요한 크리소스톰과 철학-의학적 치료,” 『갱신과 부흥』 26 (2020), 43-80.

2 Wendy Mayer, “Medicine in Transition: Christian Adaptation in the Later Fourth-Century East,” in *Shifting Genres in Late Antiquity*, ed. G. Greatrex and H. Elton (Farnham: Ashgate 2015), 11-26; Wendy Mayer, “The Persistence in Late Antiquity of Medico-Philosophical Psychic Therapy,” *Journal of Late Antiquity* 8 (2015), 337-51. 고대 세계는 몸과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했고, 철학과 의학도 통합된 하나의 학문이었다. 철학자와 의사들은 둘 다 몸과 영혼을 치료하려고 했다. Philip J. van der Eijk, *Medicine and Philosophy in Classical Antiquity. Doctors and Philosophers on Nature, Soul, Health and Disea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Brooke Holmes, “Disturbing Connections: Sympathetic Affections, Mental Disorder, and the Elusive Soul in Galen,” in *Mental Disorders in the Classical World*, ed. William V. Harris (Leiden: Brill, 2013), 147-76.

3 고대 철학적 치료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Martha C. Nussbaum, *The Therapy of Desire: Theory and Practice in Hellenistic Eth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Christopher Gill, “Philosophical Therapy as Preventive Psychological Medicine,” in *Mental Disorders in the Classical World*, ed. William V. Harris (Leiden: Brill, 2013), 339-60.

4 배정훈, “*Status Quaestionis*: 요한 크리소스톰 가난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신학논총』 36 (2020), 48-87.

고대 후기에 요한만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도움을 호소한 교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사상 전반에 퍼져있는 영혼 치료학(psychagogy)이 구제사상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대 철학과 의학 배경에서 기독교적 나눔에 대한 요한의 이해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특별히 영혼의 눈병과 치료에 대한 그의 언급에 주목하고자 한다. 요한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그의 회중들을 하나님의 안과병원(Divine ophthalmic hospital)으로 인도한다. 본 논문은 요한의 『마태복음 20번째 설교』(*In Matthaëum homiliae 20*)에 초점을 둔다. 이 설교는 마태복음 6장 19-24절을 다룬다. 마태복음 시리즈 설교는 부와 가난에 대한 요한의 사상과 실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총 90편의 설교 중 약 55편이 부, 가난, 자선이 주요 주제이기 때문이다.<sup>5</sup> 이 중에서 20번째 설교는 에릭 코스탄조(Eric Costanzo)도 옳게 지적했듯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sup>6</sup> 요한의 설교에서 구제에 관한 가르침은 일부분, 보통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이 설교는 대부분이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sup>7</sup>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영적인 눈병 진단에 대한 요한의 언급을 고대 철학과 의학 배경에서 분석할 것이다. 언급된 병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고 증상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둘째, 영적 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요한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고대 안과학 배경에서 어떤

5 참고. C. Bauer, *John Chrysostom and His Time*, trans. M. Gonzaga, vol. 1 (London: Sands, 1959), 217.

6 Eric Costanzo, *Harbor for the Poor: A Missiological Analysis of Almsgiving in the View and Practice of John Chrysostom*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 2013), 69.

7 Richard. D. Finn, *Almsgiving in the Later Roman Empire: Christian Promotion and Practice (313-45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52. 마태복음 20번째 설교 장소와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J.N.D. 켈리(Kelly)에 따르면 마태복음 설교들은 390년 안디옥(Antioch)에서 연속적으로 전해졌다. J.N.D. Kelly, *Golden Mouth: the Story of John Chrysostom - Ascetic, Preacher, Bishop*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90. 그러나 웬디 마이어(Wendy Mayer)는 요한 설교의 기록연대와 장소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에서 같은 시리즈에 속한 설교라고 해도 기록 시기와 장소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마태복음 설교 중 한 편이 390년 안디옥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마태복음 설교 전체가 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Wendy Mayer, *The Homilies of St John Chrysostom - Provenance: Reshaping the Foundations* (Roma: Pontificio Istituto orientale, 2005), 22-23. 필자는 이러한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20번째 설교는 390년대에 안디옥에서 전달되었다고 가정한다.

치료 방법이 처방되었는지 살펴보고 치료과정에 사용된 원리와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눈의 수사학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그가 특정한 눈병을 주요 메타포로 채택한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영혼의 안과의사(ophthalmologist)로서의 요한의 목회적 돌봄을 이해하고자 한다.

## II. 영혼의 눈병

### 1. 녹내장 진단

『마태복음 20번째 설교』는 탐심(*φιλαργυρία*)의 병과 치료를 이야기한다. 요한은 영혼의 의사로서 먼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다. 고대 철학적 치료에 따르면 치료과정은 병의 진단에서 시작한다.<sup>8</sup> 『화에 대하여』(*De Ira*)에서 로마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B.C.E. c.1-C.E. 65)는 우선 화가 영혼에 얼마나 큰 해를 입히는지 자세하게 묘사한다.<sup>9</sup> 영적인 병의 정체와 증상은 악덕의 본성과 관련 있다. 철학 학파에 따라 이에 대한 서술이 달랐다.<sup>10</sup> 요한은 신자들의 영혼의 눈이 탐욕으로 인해 녹내장(*Glaucoma, γλαύκωμα*)에 걸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른 설교에서도 여러 가지 병명을 사용하여 영혼의 병을 규정했다. 영혼은 병들고 염증, 종양, 상처를 입고 정신병에 걸리기도 한다. 이러한 병리학적 진술은 은유 이상이다. 실제로 영혼은 병들고 아프다.<sup>11</sup> 고대 철학자들은 욕망, 정욕, 잘못된 생각 등을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영혼의 병으로 여겼다. 그중에서 화, 동정심, 두려움, 걱정 등과 같은 감정/욕망(*πάθη*)이 주된 문제였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키케로(B.C.E. 106-43)에

<sup>8</sup> Gill, "Philosophical Therapy," 351.

<sup>9</sup> Seneca. *De Ira*. 1.1-2.17(LCL 214:1-6-203).

<sup>10</sup> Richard Sorabji, *Emotion and Peace of Mind: From Stoic Agitation to Christian Temp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59-62.

<sup>11</sup> 배정훈, "구제와 영혼의 치유에 대한 존 크리소스톰의 사상 연구: 그의 마태복음 설교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88 (2018), 125-28.

따르면 “동정심, 질투, 환희, 기쁨과 같은 감정들은 그리스 용어로 병(*morbos*)인데 이는 곧 이성을 따르지 않는 영혼의 동요(*motus animi*)이다.”<sup>12</sup>

녹내장은 백내장(cataract)과 함께 고대 세계에서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심각한 눈병이었다. 물론 고대의 녹내장에 대한 판단이 현재와 같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수정체 체액(*crystalline lens humor*) 이상으로 동공(*pupil*)이 붓고 눈 색깔이 하늘색이나 녹색 또는 회색을 띠는 현상을 말했다. 녹내장은 시야를 흐리게 하고 심할 경우 실명의 원인이 되었다.<sup>13</sup>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E. c.460-c.370) 시대는 안과학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관찰로 눈병을 진단했다.<sup>14</sup> 주후 1세기부터 의사들은 녹내장 병과 하늘색 혹은 연녹색의 눈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후자는 아름다움을 상징했다.<sup>15</sup>

안다옥 교인들, 특히 부자들의 영적인 눈병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고대 그리스-로마는 시각장애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다.<sup>16</sup> 모호하기는 하지만 요한이 쓴 *τὸ φλόω*(눈이 멀다)라는 용어를 보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이다. 또한 “어둡게 만들다”라는 뜻의 *σκοτώω*도 사용된다. 그리스-로마 세계에는 시각 장애인이었다. 고대 신화, 역사에는 눈이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그리스-로마 의학 서적의 상당 부분도 눈병을 다뤘다. 주후 2세기 말의 의사 갈렌(Galen, C.E. 130-210)은 100가지 이상의 눈병을 기록했다.<sup>17</sup>

12 Cicero, *Tusc.* 3.7(LCL 141:232-33).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모든 번역은 본인의 것이다.

13 Christopher T. Leffler 외 4명, “The Early History of Glaucoma: The Glaucomous Eye(800 BC to 1050 AD),” *Clinical Ophthalmology* 9 (2015), 207-12.

14 Papadopoulos G. 외 5명, “Treatment of Eye Diseases in the Hippocratic Era,” *Hellenic Journal of Surgery* 90 (2018), 143.

15 Constantinos Trompoukis and Dimitrios Kourkoutas, “Greek Mythology: The Eye, Ophthalmology, Eye Disease, and Blindness,” *Canadian Journal of Ophthalmology* 42 (2017), 455-59; Leffler, “The Early History of Glaucoma,” 207.

16 Martha L. Rose, *Staff of Oedipus: Transforming Disability in Ancient Gree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0), 80; Lisa Trentin, “Exploring Visual Impairment in Ancient Rome,” in *Disabilities in Roman Antiquity: Disparate Bodies, A Capite ad Calcem*, ed. Christian Lae 외 2명 (Leiden: Brill, 2013), 93.

17 R. P. J. Jackson, “Eye Medicine in the Roman Empire,” in *Rise and Decline of the Roman World*, ed. Wolfgang Haase (Berlin: De Gruyter, 1996), 2229; Rose, *Staff of Oedipus*, 79.

안디옥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요한은 교회로 오는 길의 시장과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서 눈이 뽑히거나 팔이 잘린 거지들을 보았다. 그들은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구걸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sup>18</sup> 시각장애의 주된 원인은 앞서 언급한 녹내장과 백내장이다. 이 외에도 사고, 전쟁, 유전, 전염병, 노화 등의 원인이 있었다.<sup>19</sup>

마태복음 설교에는 녹내장과 관련된 전문 의학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병의 원인에 대한 요한의 언급에서 병명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요한은 탐심의 문제에 주목한다.

최소한 우리가 늦게나마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ἀναβλέψωμεν) 그에게 정확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떻게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ἐτυφλώθης) 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눈이 멀었습니까? 악한 욕망 때문입니다. 나쁜 체액(πονηρὸς χυμός)이 깨끗한 안구(κόρη καθαρῇ)에 쌓인 것처럼 돈에 대한 사랑이 구름을 짙게 만들었습니다.<sup>20</sup>

요한에 따르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드는 나쁜 체액(evil humor, πονηρὸς χυμός)이다. 이 체액이 안구에 쌓여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탐욕의 체액이 영혼의 눈의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 요한은 고대 의학의 체액 이론(humoristic theory)을 따랐다. 이는 몸의 질병을 네 가지 체액들, 피(blood), 점액질(phlegm), 황담즙(yellow bile)과 흑담즙(black bile) 간의 불균형으로 설명한다.<sup>21</sup> 학자들은 요한의 의학지식의 상당 부분이 갈레네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갈레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E. c.460-c.370)에 이르기까지의 의학 전통을 반영한다.<sup>22</sup> 히포크라테스는 녹내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1세기

18 Chrys. *Eleem.* 1 (PG 51:261.4-20).

19 Rose, *Staff of Oedipus*, 81-86; Trentin, "Exploring Visual Impairment," 95-106.

20 Chrys. *hom.* 20.5 in *Mt.* (PG 57:293.6-11). [] 는 본인의 추가이다.

21 Blake Leyerle, "The Etiology of Sorrow and its Therapeutic Benefits in the Preaching of John Chrysostom," *Journal of Late Antiquity* 8 (2015), 369, 371-73.

이후부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과학이 발전한다. 녹내장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설명은 로마의 의학 백과사전 저자인 셀수스(Celsus, B.C.E. c.25-C.E. 50)가 시도했다.<sup>23</sup> 그는 『의학에 관하여』(*De Medicina*)에서 녹내장의 원인은 과도하게 배출된 수정체 체액이라고 지적한다. 이 체액이 굳어져 두터운 막을 만들어 수정체를 가린다. 이는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안구의] 그 빈 곳에 유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리스인들이 *hyaloides*라고 부르는 물질이 모인다; 이는 체액이다. 이는 액체도 고체도 아닌 굳어진 것이다. 검은색이든 푸른색이든지 동공의 색은 이것의 색에 의존한다...체액이 두 막(tunics) 아래에 생긴다...이것이 굳어짐에 따라 그 안의 시력에 장애물이 된다.<sup>24</sup>

요한은 이러한 안과학적인 진술을 적용하여 사람들의 영혼의 눈이 녹내장에 걸렸다고 주장한다. 과다 배출된 탐욕의 체액이 영혼의 시야를 가려버렸다.

탐심, 영혼의 녹내장, 시각장애 이야기는 요한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9-24절, 특별히 22-23절 주석에 기초해 있다.<sup>25</sup> 눈과 마음을 비교하는 이 구절은 초대교회에서 영혼의 실명 메타포의 근거 구절이었다.<sup>26</sup> 육신에 눈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눈이 있다. 요한에 따르면 마음의 눈은 이성(*νοῦς/δίανοια*)이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없다.

22 U. Bachmann, "Medizinisches in den Schriften des griechischen Kirchenvaters Johannes Chrysostomos" (D.Med. diss., Universität Dusseldorf, 1984), 10-33, 123; Raymond Le Coz, "Les pères de l'église grecque et la médecine," *Bulletin de Littérature Ecclésiastique* 98 (1997), 139-40. 최근에 무스그로브는(Caroline J. Musgrove, "Oribasius' Woman: Medicine, Christianity and Society in Late Antiquity" Ph.D. diss., University of Cambridge, 2017), 요한이 4세기의 의학 연구자이자 의사인 오리바시우스(Oribasius, C.E. c. 320-403)의 저술을 접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3 Papadopoulos, "Treatment of Eye Diseases," 143; Leffler, "The Early History of Glaucoma," 211.

24 Celsus, *De Medicina*, 7.13-14 (LCL 336:346-49).

25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6 Hans D. Betz, "Matt. 6:22-23 and Ancient Greek Theories of Vision," in *Synoptische Studien* (Tübingen: J.C.B. Mohr, 1992), 140-54.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몸 대부분이 기능을 잃는 것과 같이 마음이 부패하면 영혼이 큰 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혼이 입는 피해는 훨씬 더 크다.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나머지 신체 기능 대부분이 사라지고, 그것의 빛이 꺼지는 것처럼 마음(*διάνοια*)이 부패할 때 여러분의 삶은 셀 수 없는 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따라서 그[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은 얼마나 크겠느냐[마 6:23]?”…만일 여러분이 보물을 곁에 두어 욕망(*πάθη*)을 약하게 할 수 있는 마음(*νοῦς*)이 부패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 전체가 가장 큰 해를 입고 장애를 입게 될 것입니다.<sup>27</sup>

요한에게 있어서 영혼의 병은 이성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크리스토퍼 길(Christopher Gill)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런 진단법은 철학적 치료의 핵심적인 특징이다.<sup>28</sup> 고대 도덕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성의 기능 상실로 인한 잘못된 생각과 신념을 영혼의 병으로 보았다.<sup>29</sup> 요한은 이성으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욕망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성이 약해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영혼의 평화가 깨진다. 이로 인해 올바른 사고 방식(*γνώμη*), 판단(*κρίσις*), 선택(*προαίρεσις*) 등 영혼의 다른 기능들도 피해를 입는다.<sup>30</sup>

콘스탄틴 보시니스(Constantine Bosinis)는 요한이 이러한 영혼의 병리학을 자주 플라톤의 영혼의 전차 비유를 통하여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1</sup> “파이드

<sup>27</sup> Chrys. *hom.* 20.3-4 in *Mt.* (PG 57:291.3-6, 40-43).

<sup>28</sup> Gill, “Philosophical Therapy,” 348-51.

<sup>29</sup> Antigone Samellas, *Death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50-600 A.D.): The Christianization of the East: An Interpreta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2), 93-108.

<sup>30</sup> Raymond Laird, *Mindset, Moral Choice, and Sin in the Anthropology of John Chrysostom* (NSW: St. Pauls Publications, 2012), 250-51.

<sup>31</sup> Constantine Bosinis, “Two Platonic Images in the Rhetoric of John Chrysostom: “The

로스”(Phaedrus)의 심리적 생리학(physiology)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이성 혼(νοῦς), 기개혼(θυμός), 욕망혼(ἐπιθυμί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플라톤은 영혼 전체는 전차에, 이성은 마부에, 나머지 두 부분은 말에 비유한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마부는 매우 완고한 욕망혼의 말을 턱이 피로 물들 정도로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sup>32</sup> 이러한 플라톤적인 메타포를 차용하여 요한 역시 이성 혼에 의한 다른 두 부분의 통제를 주장한다. 만일 이성이 다른 두 부분을 잘 다스린다면 영혼은 건강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병에 걸린다.<sup>33</sup> 이런 점에서 영혼의 균형 상실이 마음의 병의 원인이다. 요한의 심리학적 진술은 결국 플라톤, 갈렌, 셀수스 등의 철학적, 의학적 균형 상실 이론을 반영한다.<sup>34</sup> 그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영혼이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이성은 장군이며 선장이 다. 장군이 없다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선장이 죽는다면 아무리 좋은 배도 쓸모없다.<sup>35</sup>

## 2. 증상

셀수스에 따르면 녹내장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눈이 파랗게 변하고 동공이 팽창하고 불규칙하며 고통을 일으킨다. 체액으로 생긴 두껍고 단단한 막 때문에 눈이 침침해지고(dim-sightedness), 악성으로 발전하면 시력을 잃는다.<sup>36</sup> 요한은 영혼의 녹내장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말한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1절(“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을 기초로 탐욕에 사로잡힌

Wings of Love’ and ‘The Charioteer of the Soul,” *Studia Patristica* 41 (2006), 436-38.

<sup>32</sup> Plato, *Phdr.*, 246a.8-9, 253d.1-254d.10 (LCL 36:470-71, 494-97).

<sup>33</sup> Chrys. *hom.* 17.3 in *Eph.* (PG 62:120.41-122.2). 요한은 이교 철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욕망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플라톤적인 메타포를 변형한다. Bosinis, “Two Platonic Images,” 436-37.

<sup>34</sup> Wendy Mayer, “Madness in the Works of John Chrysostom: A Snapshot from Late Antiquity,” in *Concept of Madness from Homer to Byzantium: Manifestations and Aspects of Mental Illness and Disorder*, ed. Hélène Perdicoyanni-Paléologou (Amsterdam: Adolf M. Hakkert, 2016), 354-55.

<sup>35</sup> Chrys. *hom.* 20.3 in *Mt.* (PG 57:291.6-16).

<sup>36</sup> Celsus, *De Medicina*, 7.13-14 (LCL 336:346-49).

자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다. 그는 이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노예 메타포를 사용한다.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의학화 된 요한의 담론에서 영적 노예 비유는 자주 사용된다.<sup>37</sup> 돈과 수익, 사업과 같은 땅의 것만 쫓아간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 예배와 영적 생활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 환자들의 상태는 어떤 노예들의 상태보다 더 심각하다. 그들은 인간의 핵심적인 본질인 고귀함과 자발성을 스스로 버리고 가장 완악한 군주인 탐욕을 섬긴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경비견처럼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으르렁댄다.<sup>38</sup>

둘째, 요한은 쉽게 공포심을 느끼는 시각 장애인들의 특징을 이용하여 영혼의 녹내장을 설명한다. 그들은 작은 줄도 뱀으로 착각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와 같이 영적 녹내장 환자는 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 어떤 사람은 이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기도 한다.<sup>39</sup> 두려움, 걱정과 슬픔은 탐심의 합병증이다. 요한은 특별히 부자들이 이런 합병증에 취약하다고 주장한다.<sup>40</sup> 요한은 『마태복음 89번째 설교』에서 화려한 옷과 값비싼 액세서리에 집착하는 귀족 여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들은 사치의 병에 걸렸다. 이는 쾌락, 허영심, 교만과 헛된 영광을 동반한다. 그들의 화려함의 이면에는 언제 부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과 염려, 걱정이 가득하다.<sup>41</sup> 가진 것이 많은 수록 영혼의 두려움은 더 커진다.

셋째, 재물이 필요한 곳을 보지 못한다. 요한은 부자들이 여성적이라고 꾸짖는다. 고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남성성은 남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척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의 여성스러움에 대한 요한의 주장은 부자들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주었을 것이다.<sup>42</sup> 그들은 또한 극장의 배우와 같다. 배우들은 줄 위를 걸어가는 위험한 곡예를 하지만 정말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는

37 Chris L. de Wet, *Preaching Bondage: John Chrysostom and the Discourse of Slavery in Early Christianity*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5), 75-76.

38 Chrys. *hom.* 20.3 *in Mt.* (PG 57:290.7-23).

39 Chrys. *hom.* 20.4 *in Mt.* (PG 57:292.13-25).

40 Leyerle, "The Etiology of Sorrow," 370.

41 Chrys. *hom.* 89.3 *in Mt.* (PG 58:785.5-31).

42 Chris L. de Wet, "Grumpy Old Men? Gender, Gerontology, and the Geriatrics of Soul in John Chrysostom,"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24 (2016), 507-20.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부자들은 사치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 『마태복음 89번째 설교』의 귀족 여성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것도 아깝게 여기지만, 귀걸이 하나에는 수만 달란트를 아끼지 않는다. 요한에 따르면 정말 필요한 상황에 덕을 행하지 않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다.<sup>43</sup> 교부들은 소유 자체보다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마 6:24). 영혼의 눈이 먼 채 재물만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땅에 쌓아둔 부자들의 재산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 좁과 동록이 해하고, 강도가 빼앗을 것이다. 원수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현세의 심판은 피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심판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요한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단언한다. 이는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큰 심판이다.<sup>44</sup>

### III. 구제의 카우칭(Couching) 수술

안다옥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고대 철학적 치유의 진단·처방의 구조와 유사하게 의화학 된 요한의 기독교 구제 담론도 이 순서를 따른다. 병든 영혼의 눈을 치료하는 요한의 의술 역시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그의 설교와 고대 의학 자료 비교를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다. 히포크라테스는 가벼운 눈병에는 냉·온수 목욕, 안약, 약초 등을, 심할 때는 뜸과 수술을 처방했다. 뜸과 수술은 정맥 근처에 했는데 고대인들은 정맥이 온몸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수술의 위치는 눈 가까이는 눈꺼풀과 눈의 바깥쪽 부분, 멀리는 이마나 관자놀이, 혹은 머리 뒤였는데 피부를

43 Chrys. hom. 20.4-5 in Mt. (PG 57:292.13-51); Chrys. hom. 89.4 in Mt. (PG 58:787.2-788.4).

44 Chrys. hom. 20. 3, 6 in Mt. (PG 57:289.55-290.23, 294.20-42); hom. 21.2 in Mt. (PG 57:296.17-54).

벗겨 톱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뼈를 절개하여 고인 체액이나 피, 고름을 제거했다.<sup>45</sup> 1세기 이후 치료법은 좀 더 정교해졌다. 셀수스나 갈렌은 녹내장의 원인이 체액의 과다 배출로 인한 두꺼워진 수정체에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였다. 경미한 경우는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안약, 약초 등으로 치료했지만,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중증 이상의 환자들에게는 카우칭(couching)으로 불리는 수술을 했다.

카우칭은 ‘coucher’라는 불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눅히다’를 의미한다. 이는 뾰족한 바늘로 체액이 굳어진 막을 시야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카우칭은 백내장 수술에도 사용되었다. 고대 세계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큰 병인 백내장과 녹내장의 원인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c.150-c.215)의 세레론을 연구한 에밀리 케인(Emily Cain)에 따르면 클레멘트는 세레 이전의 사람들이 영적인 백내장을 앓고 있다고 보았다. 클레멘트는 이들에게 세레의 카우칭 수술을 시도했다.<sup>46</sup> 눈 가장자리나 표면에 하는 수술과 달리 카우칭은 눈에 직접적으로 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담당하는 전문 의사가 있었다. 이 수술은 정교하고 위험했지만, 수술법이 간단하고 빠르며 별다른 의료기구를 필요하지 않았다.<sup>47</sup>

셀수스는 『의학에 관하여』에서 고대의 카우칭 수술 과정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한다. 수술 전 여러 예비 작업이 있다. 우선 체액 막이 수술이 가능한 정도로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수술 3일 전부터 환자는 물만 마시고 하루 전에는 온전히 금식한다. 수술 당일 환자는 밝은 방에 빛을 마주 보고 앉고, 의사는 맞은 편 조금 높은 위치에 앉는다. 조수는 환자 뒤에서 환자의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잡고 있다. 만일 환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반대편 눈을 가리고 난 후 수술은 시작된다.<sup>48</sup> 셀수스에 따르면 이는 다음과 같다.

45 Papadopoulos, “Treatment of Eye Diseases,” 143-44.

46 Emily Cain, “Medically Modified Eyes: A Baptismal Cataract Surgery in Clement of Alexandria,” *Studies in Late Antiquity* 2 (2018), 491-511; Leffler, “The Early History of Glaucoma,” 211-12.

47 Jackson, “Eye Medicine in the Roman Empire,” 224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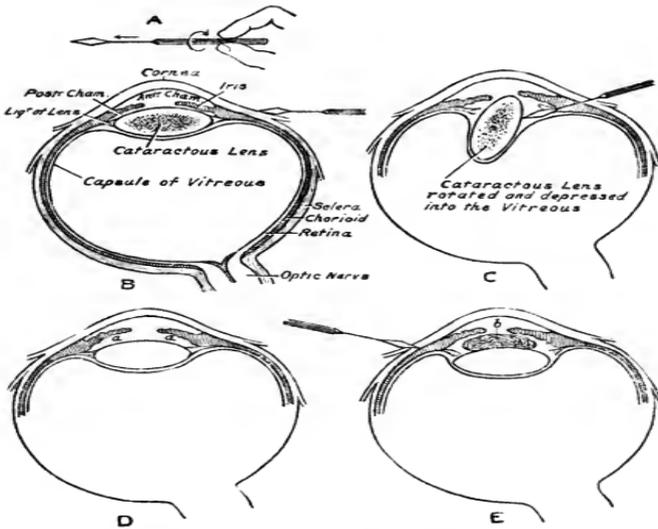
48 Celsus, *De Medicina*, 7.14 (LCL 336:349-51).

그 후 관통할 수 있을 만큼 뾰족한 바늘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가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두 개의 외부 튜닉을 통해 동공과 백내장 중앙에서 떨어진 관자놀이에 인접한 각도 사이의 중간 지점에 정맥이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직선으로 삽입해야 한다. 그러나 바늘을 소심하게 넣으면 안 된다. 바늘이 빈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도달하면 보통의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잘못 판단할 수 없다. 그때에는 압력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굳은 막을 향해 바늘을 기울여 부드럽게 돌려서 그 막이 조금씩 동공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 백내장이 동공 아래로 지나가면 아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세게 압박받는다. 백내장이 거기에 달라붙으면 치료가 완료된 것이다. 만일 그것이 다시 돌아오면 같은 바늘로 그것을 잘라 개별적으로 더 쉽게 치울 수 있는 여러 조각으로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시력에 더 작은 장애물로 만들어야 한다.<sup>49</sup>

셀수스가 알려주는 녹내장 수술 방법은 바늘을 이용해 동공에 생긴 두꺼운 막을 동공 아래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녹내장은 거기에 마치 누워있는 것처럼 붙어있다. 이로써 시야가 다시 확보된다. 갈렌 역시 녹내장 혹은 백내장의 위치를 바꿔주는 방법을 적합한 치료 방법으로 권한다. 녹내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로마의 수사학자 아일리언(Aelian, c.175-c.235)은 『동물의 특징에 대하여』(*De natura animalium*)에서 실명 위기에 놓인 염소의 특이한 행동이 카우칭 수술과 연관이 있다고 기록한다. 실명 위기에 처한 염소는 딸기나무 가시가 눈을 찌르게 한다. 눈을 가리고 있던 액체가 밖으로 배출되고 염소는 다시 볼 수 있게 된다.<sup>50</sup>

49 Celsus, *De Medicina*, 7.14 (LCL 336:351).

50 Cain, "A Baptismal Cataract Surgery," 504-505.

〈카우칭 수술 단계〉<sup>51</sup>

Cataract Couched.

- A. Paracentesis Needle, pointed, spear-ended, fixed in a cylindrical handle, which was pressed onwards whilst rotated by the thumb and finger.
- B. Eyeball. Lens cataractous. Needle entered midway between the outer angle of the eyelid and the outer margin of the iris—until the point of the needle appeared in the pupil over the front of the Cataract.
- C. Cataractous lens in the course of being "Couched."
- D. Diagram of the supposed "Locus Vacuus," the posterior chamber *a* filled with aqueous humour like the anterior chamber.
- E. Infusion, Suffusion of opaque, diseased humour into the "Locus Vacuus"; *b*, supposed to be the Cataract which was depressed or broken up

[To face p. 350.]

셀수스에 따르면 수술 후 눈에서 비늘을 빼고 부드러운 천으로 염증이 나 피, 체액 등을 닦는다. 그리고 붕대로 감는다. 환자는 당일엔 금식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연고와 진정제도 가져간다. 수술 다음 날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턱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물만 마신다.<sup>52</sup>

51 LCL 336:350

52 Celsus, *De Medicina*, 7.14 (LCL 336:351-53).

그렇다면 영혼의 안과의사인 요한은 어떤 처방을 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요한은 부자들이 탐욕의 체액으로 영적인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과수술(divine ophthalmic surgery)이 필요한 상태였을 것이다. 요한은 나눔이 내적 카우칭 수술이라고 주장한다. 물질을 흘려보냄으로 탐심의 나쁜 체액을 빼는 것이다. 이 처방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마태복음 6장 19-20절에 근거하고 있다. 구제는 고대 철학적 치료 전통에서 행동적 치료법(behaviour therapy)에 속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인식적 치료법(cognitive therapy)도 함께 사용된다. 고대 철학자들은 영혼의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된 생각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새로운 가치체계로 대체하려고 했다. 생각의 전환과 변화가 주된 치료였다.<sup>53</sup> 요한의 설교에서 인식적 치료법은 선행과 악행에 대한 미래의 보상과 심판에 대한 교차적 묘사이다. 고대 철학자들, 연설가들과 수사학자들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칭찬과 질책을 균형 있게 혼합(harmonious mix of gentle and harsh speech)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칭찬은 교만과 나태함을, 지나친 비판은 절망감과 포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 이 둘을 적절하게 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4</sup> 영혼의 병이 심할수록 여러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한다. 요한은 화의 치료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 설교, 구제의 삼중 치료를 했다.<sup>55</sup>

보상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영혼의 카우칭 수술 전의 예비단계이다. 먼저 요한은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떠올리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물질을 나누면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 이 복은 현세와 내세의 물질적, 영적 복 모두 포함하며 구원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요한은 천국의 복을 의심하지 않고 이를 자주 강조했다. 하나님의 보상은 그의 신학과 목회 사역 전반을 지탱한 중요한 신학적 원리였다. 복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다.<sup>56</sup>

53 Gill, “Philosophical Therapy,” 341, 348; Sorabji, *Emotion and Peace of Mind*, 270-72.

54 배정훈, “희망과 두려움의 수사학: 존 크리소스톰의 구제담론에서 보상과 심판의 영혼치유적 역할,” 『장신논단』 50 (2018), 71-74.

55 배정훈, “구제와 영혼의 치유,” 135.

보상에 대한 부드러운 조언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치료전략들과 연결된다. 첫째, 자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킨다. 요한의 회중들은 자선을 손해라고 여겼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믿는 사회 속에서 준 만큼 받지 못하는 것은 악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시스템 아래에서 로마의 기부 관습(gift giving)이 작동하였다. 기부는 일반적으로 시민들 사이의 교환 거래였다.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 되갚을 능력이 없는 최하층의 빈자, 노예, 외국인 등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sup>57</sup> 요한은 이러한 경제적인 관습에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대신해 풍성하게 갚아준다고 답한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다(잠 19:17). 구제는 사람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손실이 아니라 유익이다. 요한은 사실상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제의 복은 수령인을 거쳐 궁극적으로 기부자에게로 반드시 돌아온다.<sup>58</sup>

둘째로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으로 그것을 치료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탐욕스러운 자들은 탐심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충족시킴으로 치료된다. 구제는 그들의 열망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선이 지름길이다. 요한은 회중들에게 왜 그들이 부를 추구하고 저장하는지 물어본 후에 만일 그들이 부를 하늘에 쌓는다면 이러한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늘어나게 한다. 부자들은 진정 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예수는 이러한 유익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sup>59</sup>

여러분은 그[그리스도]가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악을 행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 그들을 거기로부터 이끌어 덕으로 다시 가게 하는지

56 배정훈, “천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제와 헛된 영광에 대한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상,” 『갱신과 부흥』 28 (2021), 120-21; 배정훈, “희망과 두려움의 수사학,” 77-81.

57 Wendy Mayer, “Poverty and Generosity Toward the Poor in the Time of John Chrysostom,” in *Wealth and Poverty in Early Church and Society*, ed. Susan R. Holma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153-54; 배정훈, “천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117-19.

58 Chrys. *hom.* 20.2 in *Mt.* (PG 57:289.42-48).

59 Chrys. *hom.* 20.2, 4 in *Mt.* (PG 57:289.42-48, 291.44-292.9).

봅니까? 그는 말씀하십니다. “왜 부를 원하는가?” “기쁨과 사치를 누리기 위함이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거기서 이것을 얻지 못하며,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만일 우리 눈이 좋지 않다면 그 재앙으로 인해 어떤 기쁜 일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왜곡되고 불구가 된다면 이는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다시 그가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을 땅에 묻는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인가?” “그러나 여기서도 또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그는 탐욕스러운 자를 그가 가장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로잡으십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네 재산을 보존하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가? 만일 너희가 너희 금을 내가 명한 곳에 둔다면 그 두 가지 모두를 내가 너희에게 매우 풍성하게 줄 것이다.”<sup>60</sup>

하지만 보상의 약속만으로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 요한은 그러한 경험을 자주 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의 대변자’로 불릴 만큼 부자들의 도움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이러한 무감각함을 깨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극이 필요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러한 역할을 했다. 심판은 두려움을 일으켜 악에서 돌아서게 한다.<sup>61</sup> 그리스-로마 교육에서도 질책과 체벌은 중요한 교육 방법이었다. ‘공부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관용 표현은 ‘매를 잡기 위해 손을 뺀다’(manum ferulae subducere)였다.<sup>62</sup> 그리스 연설가 이소크라테스(Isocrates, B.C.E. 436-338)는 “교육의 뿌리가 쓰면 열매는 달다”라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다.<sup>63</sup>

요한의 심판 경고는 점점 강도를 더한다. 먼저 만일 부자들이 계속 부를 땅에 쌓는다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보물을 줌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간다(마 6:19). 로마 사회에서는 상위 5-10%의 고위층들이

60 Chrys. *hom.* 20.4 in *Mt.* (PG 57:291.44-292.9).

61 배정훈, “희망과 두려움의 수사학,” 81-82.

62 Henri I. Marrou,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trans. George Lamb (New York: Sheed and Ward, 1956), 272

63 Malcolm Heath, *Hermogenes on Issues: Strategies of Argument in Later Greek Rhetoric* (Oxford: Clarendon Press, 1995), 13-14, David Rylaarsdam, *John Chrysostom on Divine Pedagogy: The Coherence of His Theology and Pr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77에서 재인용.

거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지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귀족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요한은 어떤 귀족의 평생 쌓아둔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에게 넘어가는 불행을 보여준다.<sup>64</sup>

혹시 이러한 불행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은 최후 심판은 결코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평생을 탐욕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sup>65</sup> 지옥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일라리아 라멜리(Ilaria Ramelli)는 요한이 영원한 지옥 형벌(eternal damnation)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최후에는 모든 피조물, 적어도 모든 인류는 구원받는다는 초대교회의 만유 구원설(ἀποκατάστασις)을 분석하여 이 교리가 9세기까지는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요한에게 있어 κόλασις αἰώνιος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단지 내세에서의 심판에 불과하며,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경고는 성도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한 레토릭이라는 것이다.<sup>66</sup> 하지만 요한의 설교 어디에도 지옥 형벌이 일시적이라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보루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범한 후 미래의 삶에 대해 생각한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매우 두려워하고(περιδεής) 떨게 됩니다(ἐντρομος)···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진노하시고 지옥(γέεννα)은 여러분을 삼키려고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의 생각은 쉴 곳이 없습니다.<sup>67</sup>

게헌나, 즉 지옥은 실재한다. 요한은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의에 대한 가르침

<sup>64</sup> Chrys. hom. 20.5 in Mt. (PG 57:293.20-25); Helen Rhee, *Loving the Poor, Saving the Rich: Wealth, Poverty, and Early Christian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2012), 5-11.

<sup>65</sup> Chrys. hom. 20.3 in Mt. (PG 57:289.55-290.23).

<sup>66</sup> Ilaria Ramelli, *The Christian Doctrine of Apokatastasis: A Critical Assessment from the New Testament to Eriugena* (Leiden: Brill, 2013), 1, 549-64.

<sup>67</sup> Chrys. hom. 88.3 in Jo. (PG 59:482.9-11, 16-18).

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큰 형벌이 위협하는 데도 많은 사람이 악으로 탈영하는데 만일 심판의 두려움( $\phi\acute{o}\beta\omicron\varsigma$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sup>68</sup>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경고한다. 심판이 벌써 문 앞에까지 와있다. 심지어 그들 세대에 임할지도 모른다. 이미 많은 징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전쟁의 소문과 지진, 기근과 같은 마지막 때의 징표가 성취되고 있다. 이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노아의 때에 심판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안심하고 있을 때 왔다. 소돔의 심판도 마찬가지이다. 쾌락과 죄악에 빠져있을 때 심판은 도둑과 같이 온다.<sup>69</sup>

마지막으로 요한은 비록 심판이 그의 시대에 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종말,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후에는 아브라함이나 노아, 욥이나 다니엘이 우리를 위해 간청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사함을 받을 수 없다.<sup>70</sup> 탐심은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줄 뿐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나눔과 관련된 잘못된 생각의 전환, 보상과 심판의 희망과 두려움을 통해 영적 늑내장 환자는 교회의 수술대에 앉는다. 이제 서서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는 예수의 말씀의 밝은 빛이 영혼의 눈에 비친다. 하지만 아직 치료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다. 실제적인 행동인 이웃사랑이 있어야 한다. 생각의 전환만이 아닌 이에 기초한 외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는 요한의 회개/참회론과 일치한다. 참회는 단지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한다.<sup>71</sup> 구제의 바늘이 탐욕의 체액으로 굳어진 영혼의 안구의 막을 부서뜨린다.

탐욕의 병은 때때로 쉽게 낫지 않는다. 수술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수술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듣는다고

68 Chrys. *hom.* 60.5 *in Jo.* (PG 59:333.44-46).

69 Chrys. *hom.* 20.6 *in Mt.* (PG 57:294.20-38).

70 Chrys. *hom.* 20.6 *in Mt.* (PG 57:294.38-42).

71 Chrys. *hom.* 20.5 *in Mt.* (PG 57:293.11-15); Vasile Răducă, “Metanoia in the Thinking of Saint John Chrysostom,” *Icoana Credinței* 4 (2016), 6.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sup>72</sup> 요한은 포기하지 말고 두 가지 방법을 실천할 것을 권한다. 첫째,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다. 말씀 듣기는 힘이 있다. 핵심 가르침과 교리의 지속적인 반복과 암기는 헬레니즘 철학 학파의 공통적인 영혼 치료 방법이다. 스토아 철학에는 ‘주목’(προσοχή)이라는 방법이 있다. 학파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가까이에 두고 자주 꺼내 보았다. 또한 여러 힘든 상황을 가정하여 교리를 적용하는 훈련도 했다.<sup>73</sup> 부자들은 그리스도의 단순한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함으로써 탐욕이 얼마나 영혼에 해를 끼치는지, 그의 제자로 올바른 물질관은 어떤 것인지 떠올린다.

둘째, 탐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요한은 탐욕은 그 본성이 너무 저급하여 욕망도 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욕망 자체를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는 행동 역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한 방식이었다. 요한은 가상의 독자에게 탐욕을 과연 욕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탐욕은 악으로조차 불릴만한 가치가 없다.<sup>74</sup> 이 악덕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욕망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만들고, 폭군의 종이 되게 하고, 사방에서 얽매이게 하고, 어둠에 거하게 하고,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고통을 견디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재물을 보호하게 하고, 종종 심지어 원수를 위해 그렇게 하도록 합니까? 이런 것들이 욕망이 될 가치가 있습니까? 오히려 피하고 혐오해야 할 그런 종류 아닙니까? 어떤 욕망이 보물을 도둑 가운데 쌓게 합니까?<sup>75</sup>

요한은 그리스도의 보상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수 없는 방법으로 재물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sup>72</sup> Chrys. hom. 20.5 in Mt. (PG 57:293.15-17).

<sup>73</sup> Simo Knuuttila, *Emotions in Ancient and Medieval Philosophy* (Oxford: Clarendon, 2004), 78-84; Hadot, *Philosophy as a Way of Life*, 85-89.

<sup>74</sup> Chrys. hom. 20.5 in Mt. (PG 57:293.18-27); Knuuttila, *Emotions in Ancient Philosophy*, 78.

<sup>75</sup> Chrys. hom. 20.5 in Mt. (PG 57:293.20-27).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염려만 커질 뿐이다. 그러나 천국에 보물을 쌓는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천국은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의 보물은 계속 늘어난다. 요한은 이것을 약속한 분이 하나님임을 강조하며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안전을 보장한다면 그들은 사막까지도 주저 없이 따라가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약속을 준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요한은 혹시 약속이 지체되더라도 인내를 가지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sup>76</sup>

요한의 의학화 된 구제 설교와 그리스-로마 철학자들과 의사들의 치료 담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웬디 마이어(Wendy Mayer)와 제임스 쿡(James Cook)은 요한이 그레코-로마 전통과 기독교 각각에 빚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지만,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마이어는 요한을 철학 전통의 영혼 치유자(psychagogue)로, 쿡은 구약의 선지자적 계보를 잇는 예언자로 간주했다.<sup>77</sup> 이 두 이론이 요한에게 분리되어 있을까? 필자는 이들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요한은 당시의 문화적 유산을 기독교 전통, 특별히 죄 용서와 구원을 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성경 구절(칠십인역 단 4:27; 잠 15:27; 눅 11:41 등)을 중심으로 변형하여 기독교 영혼 치료적 구제론을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에이브릴 카메론(Averil Cameron)이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담론을 대체하는 ‘전체적인 담론’(totalizing discourse)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다.<sup>78</sup>

영혼의 병에 대한 철학적 개념이 기독교 신학의 틀 속에서 수용, 변화되었다.

<sup>76</sup> Chrys. *hom.* 20.5-6 *in Mt.* (PG 57:293.27-294.8).

<sup>77</sup> Wendy Mayer, “Shaping the Sick Soul: Reshaping the Identity of John Chrysostom,” in *Christian Shaping Identity from the Roman Empire to Byzantium: Studies Inspired by Pauline Allen*, ed. Geoffrey D. Dunn and Wendy Mayer (Leiden: Brill, 2015), 140-64; James Cook, “Preaching and Christianization: Reading the Sermons of John Chrysostom” (Ph.D. diss. Oxford University, 2016). 더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배정훈, “구제, 영혼의 치유, 구원: 요한 크리소스톰과 고대 철학적 치유의 기독교화,” 『한국교회사학회지』 54 (2019), 179-89.

<sup>78</sup> Averil Cameron, *Christianity and the Rhetoric of Empire: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Discours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19, 21, 222.

학자들은 죄에 대한 요한의 관점이 그리스-로마 세계와 기독교 신학 사이에 있다고 주장해왔다.<sup>79</sup> 그러나 요한은 두 사상을 통합했다. 죄는 곧 영적인 평정을 깨트리는 무질서한 욕망이나 뒤틀린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과 지옥 형벌 아래 있는 끔찍한 상태이다.<sup>80</sup> 마태복음 6장 19-24절을 주석하면서 요한은 플라톤과 셀수스, 갈렌 등으로 대표되는 영혼의 생리학과 병인학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기독교의 신학으로 다시 읽는다. 탐욕으로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영혼의 평정을 무너트리고 영적인 눈병을 일으키면서도 그 전망이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다. 영적 녹내장 환자는 미래의 영원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요한에 따르면 구제의 카우칭 수술은 영혼의 녹내장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한다. 이런 점에서 구원(영혼의 치료)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영혼의 평화를 포함한 미래에서의 구원까지 포함한다.<sup>81</sup> 요한은 당대

79 Wendy Mayer, "John Chrysostom: Moral Philosopher and Physician of the Soul," in *John Chrysostom: Past, Present, Future*. ed. Doru Costache and Mario Baghos (Sydney: AIOCS Press, 2017), 206.

80 Cook, "Preaching and Christianization," 170.

81 죄 용서, 구원, 구제의 연관성으로 인해 요한은 때때로 행위 구원론자로 오해받기도 했다. Pak-Wah Lai, "John Chrysostom and the Hermeneutics of Exemplar Portraits" (Ph.D. diss., Durham University, 2010), 130-31.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우선 명심할 것은 이 교리는 모두 세례 이후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대교회는 이 죄들의 용서는 참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다. 구제는 여러 가지 참회 행위 중의 하나였다(penitent almsgiving). 구제는 신자들의 죄 용서 수단이었다. Alexis C. Torrance, *Repentance in Late Antiquity: Eastern Asceticism and the Framing of the Christian Life c. 400-650 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64-87. 또한 동방 교부인 요한은 서방에 비해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강조하지만,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요한에게 있어서 구제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으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이 행동하지만, 그것을 효과 있게 만드는 것은 은혜임을 지적한다. 대표적인 예가 설교 마지막의 송영이다. 여기서 요한은 도덕적인 선행, 자선과 그 열매들에 대해 권고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마태복음 20번째 설교에서 요한은 초대교회의 '치료자로서의 예수'(Christus Medicus) 개념 위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안과 의사이며 자신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라고 주장한다. Iain R. Torrance, "God the Physician: Ecclesiology, Sin, and Forgiveness in the Preaching of St. John Chrysostom,"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44 (1999), 163-76; Rudolf Brändle, "This Sweetest Passage: Matthew 25:31-46 and Assistance to the Poor in the Homilies of John Chrysostom," in *Wealth and Poverty in Early Church and Society*, ed. Susan R. Holma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127-39;

의 철학적-의학적 치료의 내용과 범위 및 목적을 변혁하여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하였다. 데이비드 릴라르스담(David Rylaarsdam)은 이를 기독교 문화 형성하기 위한 “문화적 공개매입”으로 표현한다.<sup>82</sup> 유타 트로카(Jutta Tloka)는 같은 선상에서 흥미롭게도 요한을 ‘헬라적 기독교인’(griechische Christen)이 아닌 ‘기독교적 헬라인’(Christliche Griechen)이라고 부른다.<sup>83</sup> 요한은 고대적 배경에서 ‘기독교적 삶의 철학’을 제시한 기독교 철학자요 신학자였다.<sup>84</sup> 그의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교회가 영혼의 진정한 치료소라는 것이다. 부족하고 더 나아가 거짓된 영혼 치료가 성행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안과병원을 소개한다.

#### IV. 영혼의 논의 메타포

고대 사회에서 메타포는 상징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메타포는 살아있

---

Jonathan R. Tallon, “Faith in John Chrysostom’s Preaching: A Contextual Reading” (Ph.D. diss., University of Manchester, 2015).

요한의 참회적 구제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행위의 기저에 있는 근거 본문들에 대한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많은 초대 교부들은 이 본문들이 구제를 통한 죄 용서를 뜻한다고 읽었다. David J. Downs, *Alms: Charity, Reward, and Atonement in Early Christianity*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16). 한편 학자들은 요한의 구원론을 동방교회의 신격화(deification)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들은 구제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간다(imitation of God).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하나님과 우정이 형성되고 그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Sergio Zincone, “Essere simili a Dio: l’esegesi crisostomiana di Mt 5:45,” *Studia Patristica* 18 (1986), 353-58; Maria Verhoeff, “More Desirable than Light Itself: Friendship Discourse in John Chrysostom’s Soteriology” (Ph.D. diss.,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2016).

<sup>82</sup> David Rylaarsdam, *John Chrysostom on Divine Pedagogy: The Coherence of His Theology and Pr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

<sup>83</sup> Jutta Tloka, *Griechische Christen. Christliche Griechen. Plausibilisierungsstrategien des antiken Christentums bei Origenes und Johannes Chrysostomos* (Tübingen: Mohr Siebeck, 2005), 127-250.

<sup>84</sup> Anne-Marie Malingrey, *Philosophia: étude d’un groupe de mots dans la littérature grecque des présocratiques au IVe siècle après J. C* (Paris: C. Klincksieck, 1961), 270-86.

으며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다.<sup>85</sup> 이는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와 마크 존슨(Mark Johnson)의 연구에서도 잘 설명되었다. 그들은 인지적 은유 개념(conceptual metaphor theory)를 제안하면서 메타포가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지구조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메타포는 삶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인 것이다.<sup>86</sup> 요한은 실제로 영혼(마음)에는 눈이 있으며 이것이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22-23절이 이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병을 녹내장이라고 정의했을까? 여기서 특별히 녹내장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로마 사람들은 눈을 영혼의 거울로 여길 만큼 소중하게 여겼다.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배제될 확률도 높았다. 고대 관상가(physiognomist)들은 눈을 보고 개인의 성격을 파악했다. 동공이 불규칙하다면 그 사람의 인성은 저평가되었다. 하지만 많은 고대인은 시각장애를 그대로 안고 살았다. 비용도 문제였고 치료하다가 오히려 장애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녹내장 제거를 위한 카우칭 수술은 특히 위험했다. 이는 고대에서 가장 위험한 안과수술이었다. 오늘날과 같은 첨단 장비도 없던 시절에 순전히 경험에 의존해야 했다.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다. 또한 이는 아무나 받을 수도 없었다. 셀수스에 따르면 안구를 가리고 있는 막이 바늘로 이동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해야 했다. 그리고 젊고 건강해야 했다. 따라서 소수의 사람만 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sup>87</sup> 셀수스는 수술 자격을 길게 논한다.

이 병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것은 치료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막(*suffusio*)이 작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바다색이나 반짝이는 철 색깔이라면, 눈가에 불빛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 [그러나] 만일 막이 크고, 검은 눈동자가 본래의 위치를 잃고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다면, 막의 색이 하늘색이거나 황금색이라면, 이것이 흔들리거나

<sup>85</sup> Patricia C. Miller, *The Corporeal Imagination: Signifying the Holy in Late Ancient Christianit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9), 3-5.

<sup>86</sup>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4-7.

<sup>87</sup> Cain, "A Baptismal Cataract Surgery," 506-10.

이리저리 움직인다면,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심각한 질병이나 머리의 심한 고통, 혹은 세계 맞아서 그 막이 생겼다면 상황은 더 나쁘다. 노력도 치료에 좋지 않다. 이 병과 상관없이 시력의 날카로움이 자연스럽게 둔해지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도 좋지 않고 중간 대의 나이가 좋다. 작거나 움푹 들어간 눈도 치료에 맞지 않다. 그리고 막 자체도 어떤 발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더 이상 액체가 아니라 단단하게 합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sup>88</sup>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요한의 의도를 세 가지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탐욕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이다. 요한은 탐심이 가장 악한 죄라고 반복적으로 지적한다. 초대교회는 간음, 살인, 우상숭배, 배교와 같은 죄를 대죄(capital sins)로 여기고 세례 후에 단 한 번만의 용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물론 3세기 이후로 이러한 엄격성은 사라지지만 중죄 목록은 여전히 있었다.<sup>89</sup> 탐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요한은 이 죄가 중죄 못지않다고 주장한다. 요한은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죄는 영혼의 심각한 질병이다.<sup>90</sup> 하지만 그중에서 탐심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돈을 좇아가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마 6:24). 이 병은 여러 치료 방법을 동원하며 단번에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요한은 영혼의 눈병만을 말할 수 있었지만 ‘녹내장’이라는 구체적인 병을 통해 경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한다.<sup>91</sup>

둘째, 영적 카우칭 수술로서의 구제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요한은 심각한 영혼의 눈병을 앓고 있는 청중들을 안타까워한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자신의 병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앞서 보았듯이 카우칭 수술은 조건도 까다롭고 위험도 컸다.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카우칭 수술은 아니지만 3세기 이집트의

<sup>88</sup> Celsus, *De Medicina*, 7.14 (LCL 336:349).

<sup>89</sup> J.N.D. 켈리, 『고대 기독교 교리사』, 5판, 박희석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233-36.

<sup>90</sup> Becky J. Walker, ““QUEEN OF THE VIRTUE”: Pastoral and Political Motivation for John Chrysostom’s Exaltation of Almsgiving” (Ph.D. diss., Saint Louis University, 2018), 121.

<sup>91</sup> Jan R. Stenger, “Text Worlds and Imagination in Chrysostom’s Pedagogy,” in *Revisioning John Chrysostom: New Approaches, New Perspectives*, ed. Chris L. de Wet and Wendy Mayer (Leiden: Brill, 2019), 216-30.

한 편지에 따르면 아이 전염병 치료에 일반적인 근로자 한 달 월급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sup>92</sup> 따라서 대다수는 체념하고 살았다. 그러나 영혼의 안과에서는 수술비도 싸고 노력도 많이 들지 않고 위험부담도 없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다. 『마태복음 74번째 설교』(*In Matthaeum homiliae* 74)는 육신의 의사와는 달리 영혼의 의사는 보수, 약값과 필수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구제의 값만 받는다고 말한다.<sup>93</sup> 이 값은 구제의 본질과 관련 있다.

요한에게 있어서 자선의 의미는 매우 넓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에서 시작해 구체적인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공감, 눈물, 한숨, 칭찬, 격려, 음식, 물, 옷, 돈, 환대, 병자들과 죄수 방문하기 등이 모두 구제이다(마 10:40-42; 25:14-30, 31-46; 눅 21:1-4).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자도 할 수 있다. 물론 요한이 주목한 주된 대상은 부자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각자 처한 형편에 따라 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sup>94</sup> 『마태복음 52번째 설교』(*In Matthaeum homiliae* 52)는 구제를 기술에 비유하면서 구제의 기술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쉽고 큰 노력과 시간이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sup>95</sup>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구제의 값은 매우 저렴하다. 영혼의 녹내장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안과에서 고칠 수 있다.

고대교회는 참회 제도의 엄격성 여부를 두고 계속 논쟁을 벌였는데 요한은 사람들의 부담을 낮추려고 했다.<sup>96</sup> 전통적으로 대죄는 일생에 단 한 번 용서받을

<sup>92</sup> Norman Underwood, "Medicine, Money, and Christian Rhetoric: The Socio-Economic Dimensions of Healthcare in Late Antiquity," *Studies in Late Antiquity* 2 (2018), 359.

<sup>93</sup> Chrys. *hom.* 74.4 in *Mt.* (PG 58:684.15-26).

<sup>94</sup> Ott Plassmann, *Das Almosen bei Johannes Chrysostomus* (Münster: Aschendorff, 1961), 9-10; Junghun Bae, *John Chrysostom on Almsgiving and the Therapy of the Soul* (Paderborn: Brill, 2020), 61-67; Chrys. *hom.* 15.10 in *Mt.* (PG 57:15-24); *hom.* 45.2-3 in *Mt.* (PG 58:473.57-475.13). 요한의 구제신학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Thomas R. Karmann, "Barmherzigkeit als Thema spätantiker Großstadtpastoral: Eine Spurensuche im oeuvre des Johannes Chrysostomus," *Zeitschrift für katholische Theologie* 138 (2016), 348-67.

<sup>95</sup> Chrys. *hom.* 52.3-4 in *Mt.* (PG 58:522.45-524.25).

<sup>96</sup> Torrance, *Repentance in Late Antiquity*, 64-87. 요한에게 있어서 의지의 중요성은 다음을

수 있었다. 이 한 번의 참회는 공적이며 오랜 시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과정은 치욕스럽기도 했다. 요한은 이런 관행을 따르지 않은 것 같다. 진심 어린 회개는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특별히 구제는 어떤 영혼의 병도 고친다. 이런 입장은 키프리안, 암브로스, 어거스틴과 다르다.<sup>97</sup> 모든 사람은 영적 수술대인 교회로 올 수 있다.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 모두가 건강한 영혼의 눈을 가지기를 원했다. 눈이 건강해지면 영혼의 모든 부분이 건강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눈이 아프면 모든 것을 잃는다.

마지막으로 자비의 선행은 베푸는 자에게 큰 보상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나눔이 손해라고 생각했다. 물질도, 시간도, 노력도 허비한다고 믿었다. 이에 대해 요한은 구제의 복을 항상 강조했다. 섬김과 나눔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다(잠 19:17). 그는 누가 주는 자의 빚쟁이가 되는지 주목하라고 말한다. 구제와 희생이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구제의 복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며 훨씬 큰 유익을 준다. 복음을 위해 소유를 버리면 30, 60, 100배를 얻는다(마 19:16-31). 요한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하늘에 보물이 쌓이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 혹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상급이 쌓여있다.<sup>98</sup> 무엇보다도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간다(deification).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란다(벧후 1:4). 신격화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탐심과 화, 욕망과 죄가 사라지고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학자들은 그동안 수혜자들(가난한 자들)에 대한 요한의 관심에 과도하게 기울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가 일방적인 가난한 자들의 대변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구제는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이 결국에는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sup>99</sup> 요한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뿐

참고. Samantha Miller, "No Sympathy for the Devil: The Significance of Demons in John Chrysostom's Soteriology" (Ph.D. diss., Marquette University, 2016).

<sup>97</sup> Walker, "QUEEN OF THE VIRTUE," 104-33.

<sup>98</sup> 배정훈, "천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128-32.

<sup>99</sup> 배정훈, "요한 크리소스톰 가난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48-77.

만 아니라 부자들의 영적 복지와 유익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 V. 결론

요한은 고대 의학과 철학을 기독교적으로 전용하여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치료했다. 특히 그는 안과 지식을 통해 영적 안과학을 만들었다. 교회는 영혼의 안과병원이며 요한은 안과의사였다. 육체에 눈이 있듯이 영혼에도 눈이 있다. 요한은 탐심으로 사람들의 영혼의 눈이 멀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녹내장에 걸렸다. 탐욕의 체액이 흘러넘쳐 단단한 막이 되었다. 이 막에 가려 영혼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세상의 성공만 추구할 뿐 하나님도, 고통받고 있는 이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 잘못을 그들은 모른다. 마음이 굳어져 돌이키지 않는다. 화려한 이면에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공포, 쾌락과 허영심이 가득하다. 결국 재물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도 떠나게 된다.

부자들의 영혼의 눈 상태는 심각하다. 단순한 치료로는 회복할 수 없다. 요한은 구제의 카우칭 수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녹내장이 가장 심할 때 하는 수술이 카우칭이다. 영적 환자는 의자에 앉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의 빛을 받는다. 재물을 나눔으로 탐욕의 체액은 사라지고 점차 영혼의 시력이 회복된다. 보이지 않던 영적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다. 요한은 수술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인지적 치료 방법도 함께 동원한다. 내세의 보상 혹은 심판이 있음을 알리고 단번에 낮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에 걸맞은 지침도 준다. 궁극적인 영혼의 안과의사인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요한은 능숙하게 수술을 해나간다.

탐심은 영혼의 눈의 병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고칠 수 있다. 나눔은 강력한 영적 카우칭 수술이다. 이는 누구든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영혼의 녹내장에 대한 요한의 담론은 상당히 체계적이며 세속 철학자와 의사들의 치료 담론과 실천을 대체한다. 교회는 참된 안과병원이다.

요한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준다. 우리는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이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 영원의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탐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나눔이 필요하다. 교회 내부로, 더 나아가 사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 이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다. 요한은 나눔과 희생은 자신을 부요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구제는 손해가 아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 [참고문헌]

### 1차 문헌

- Celsus. *De Medicina*. Vol. 3. Text and Trans. W. G. Spencer. Loeb Classical Librarly(이후 LCL) 336. 1938.
- Cicero. *Tusculan Disputations*. Text and Trans. J. E. King. LCL 141. 1927.
- John Chrysostom. *De eleemosyna*. Patrologia Graeca(이후 PG) 51:262-72.  
 \_\_\_\_\_. *In epistulam ad Ephesios*. PG 62:9-176.  
 \_\_\_\_\_. *In Johannem homiliae 1-88*. PG 59  
 \_\_\_\_\_. *In Matthaenum homiliae 1-90*. PG 57-58.
- Plato. *Phaedrus*. Text and Trans. Harold N. Fowler. LCL 184:405-580. 1914.
- Seneca. *De Ira*. Text and Trans. John W. Basore. LCL 214. 1928. 106-355.

### 2차문헌

- Bae, Junghun. *John Chrysostom on Almsgiving and the Therapy of the Soul*. Paderborn: Brill, 2020.
- Bachmann, U. "Medizinisches in den Schriften des griechischen Kirchenvaters Johannes Chrysostomos." D.Med. diss., Universität Dusseldorf, 1984.
- Bauer, C. *John Chrysostom and His Time*. Trans. M. Gonzaga. Vol. 1. London: Sands, 1959.
- Betz, Hans D. "Matt. 6:22-23 and Ancient Greek Theories of Vision." in *Synoptische Studien*. Tübingen: J.C.B. Mohr, 1992. 140-54.
- Bosinis, Constantine. "Two Platonic Images in the Rhetoric of John Chrysostom: 'The Wings of Love' and 'The Charioteer of the Soul.'" *Studia Patristica* 41(2006), 433-38.
- Brändle, Rudolf. "This Sweetest Passage: Matthew 25:31-46 and Assistance to the Poor in the Homilies of John Chrysostom." In *Wealth and Poverty in Early Church and Society*. Ed. Susan R. Holma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127-39.
- Cain, Emily R. "Medically Modified Eyes: A Baptismal Cataract Surgery in

- Clement of Alexandria.” *Studies in Late Antiquity* 2 (2018), 491-511.
- Cameron, Averil. *Christianity and the Rhetoric of Empire: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Discours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Cook, James. “Preaching and Christianization: Reading the Sermons of John Chrysostom.” Ph.D. diss. Oxford University, 2016.
- Costanzo, Eric. *Harbor for the Poor: A Missiological Analysis of Almsgiving in the View and Practice of John Chrysostom*.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 2013.
- De Wet, Chris L. “Grumpy Old Men?: Gender, Gerontology, and the Geriatrics of the Soul in John Chrysostom.”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24 (2016), 491-521.
- \_\_\_\_\_. *Preaching Bondage: John Chrysostom and the Discourse of Slavery in Early Christianity*.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5.
- Downs, David J. *Alms: Charity, Reward, and Atonement in Early Christianity*.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16.
- Finn, Richard. D. *Almsgiving in the Later Roman Empire: Christian Promotion and Practice* (313-45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G, Papadopoulos 외 5명. “Treatment of Eye Diseases in the Hippocratic Era.” *Hellenic Journal of Surgery* 90 (2018), 143-45.
- Gill, Christopher. “Philosophical Therapy as Preventive Psychological Medicine.” In *Mental Disorders in the Classical World*. Ed. William V. Harris. Leiden: Brill, 2013. 339-60.
- Hadot, Pierre. *Philosophy as a Way of Life: Spiritual Exercises from Socrates to Foucault*. Ed. Arnold I. Davidson. Trans. Michael Chases. New York: Blackwell 1995.
- Holmes, Brooke. “Disturbing Connections: Sympathetic Affections, Mental Disorder, and the Elusive Soul in Galen.” In *Mental Disorders in the Classical World*. Ed. William V. Harris. Leiden: Brill, 2013. 147-76.
- Jackson, R. P. J. “Eye Medicine in the Roman Empire.” In *Rise and Decline*

- of the Roman World*. Ed. Wolfgang Haase. Berlin: De Gruyter, 1996. 2228-51.
- Karmann, Thomas R. "Barmherzigkeit als Thema spätantiker Großstadtpastoral: Eine Spurensuche im oeuvre des Johannes Chrysostomus." *Zeitschrift für katholische Theologie* 138 (2016), 348-67.
- Kelly, J.N.D. *Golden Mouth: the Story of John Chrysostom - Ascetic, Preacher, Bishop*.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 Knuuttila, Simo. *Emotions in Ancient and Medieval Philosophy*. Oxford: Clarendon, 2004.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Lai, Pak-Wah. "John Chrysostom and the Hermeneutics of Exemplar Portraits." Ph.D diss., Durham University, 2010.
- Laird, Raymond. *Mindset, Moral Choice, and Sin in the Anthropology of John Chrysostom*. NSW: St. Pauls Publications, 2012.
- Le Coz, Raymond. "Les pères de l'église grecque et la médecine." *Bulletin de Littérature Ecclésiastique* 98 (1997), 137-54.
- Leffler, Christopher T. 외 4명. "The Early History of Glaucoma: The Glaucomous Eye(800 BC to 1050 AD)." *Clinical Ophthalmology* 9 (2015), 207-15.
- Leyerle, Blake. "The Etiology of Sorrow and its Therapeutic Benefits in the Preaching of John Chrysostom." *Journal of Late Antiquity* 8 (2015), 368-85.
- Malingrey, Anne-Marie. *Philosophia: étude d'un groupe de mots dans la littérature grecque des présocratiques au IVe siècle après J. C.* Paris: C. Klincksieck, 1961.
- Marrou, Henri I.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Trans. George Lamb. New York: Sheed and Ward, 1956.
- Mayer, Wendy. "John Chrysostom: Moral Philosopher and Physician of the Soul." In *John Chrysostom: Past, Present, Future*. Ed. Doru Costache and Mario Baghos. Sydney: AIOCS Press, 2017. 193-216.

- \_\_\_\_\_. "Madness in the Works of John Chrysostom: A Snapshot from Late Antiquity." In *Concept of Madness from Homer to Byzantium: Manifestations and Aspects of Mental Illness and Disorder*. Ed. Hélène Perdicoyianni-Paléologou. Amsterdam: Adolf M. Hakkert, 2016. 349-73.
- \_\_\_\_\_. "Medicine in Transition: Christian Adaptation in the Later Fourth-Century East." In *Shifting Genres in Late Antiquity*. Ed. G. Greatrex and H. Elton. Farnham: Ashgate 2015: 11-26.
- \_\_\_\_\_. "The Persistence in Late Antiquity of Medico-Philosophical Psychic Therapy." *Journal of Late Antiquity* 8 (2015), 337-51.
- \_\_\_\_\_. "Shaping the Sick Soul: Reshaping the Identity of John Chrysostom." In *Christian Shaping Identity from the Roman Empire to Byzantium: Studies Inspired by Pauline Allen*. Ed. Geoffrey D. Dunn and Wendy Mayer. Leiden: Brill, 2015. 140-64.
- \_\_\_\_\_. "Poverty and Generosity Toward the Poor in the Time of John Chrysostom." In *Wealth and Poverty in Early Church and Society*. Ed. Susan R. Holma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140-58.
- \_\_\_\_\_. *The Homilies of St John Chrysostom – Provenance: Reshaping the Foundations*. Roma: Pontificio Istituto orientale, 2005.
- Miller, Patricia C. *The Corporeal Imagination: Signifying the Holy in Late Ancient Christianit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9.
- Miller, Samantha. "No Sympathy for the Devil: The Significance of Demons in John Chrysostom's Soteriology." Ph.D. diss., Marquette University, 2016.
- Musgrove, Caroline J. "Oribasius' Woman: Medicine, Christianity and Society in Late Antiquity." Ph.D. diss., University of Cambridge, 2017.
- Nussbaum, Martha C. *The Therapy of Desire: Theory and Practice in Hellenistic Eth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Plassmann, Otto. *Das Almosen bei Johannes Chrysostomus*. Münster: Aschendorff, 1961.

- Răducă, Vasile. "Metanoia in the Thinking of Saint John Chrysostom." *Icoana Credintei* 4 (2016), 5-12.
- Ramelli, Ilaria. *The Christian Doctrine of Apokatastasis: A Critical Assessment from the New Testament to Eriugena*. Leiden: Brill, 2013.
- Rhee, Helen. *Loving the Poor, Saving the Rich: Wealth, Poverty, and Early Christian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2012.
- Rose, Martha L. *The Staff of Oedipus: Transforming Disability in Ancient Greec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 Rylaarsdam, David. *John Chrysostom on Divine Pedagogy: The Coherence of His Theology and Pr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Samellas, Antigone. *Death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50-600 A.D): The Christianization of the East: An Interpreta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2.
- Sorabji, Richard. *Emotion and Peace of Mind: From Stoic Agitation to Christian Temp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Stenger, Jan R. "Text Worlds and Imagination in Chrysostom's Pedagogy." In *Revisioning John Chrysostom: New Approaches and New Perspectives*. Ed. Chris L. de Wet and Wendy Mayer. Leiden: Brill, 2019. 206-46.
- Tallon, Jonathan R. "Faith in John Chrysostom's Preaching: A Contextual Reading." Ph.D diss., University of Manchester, 2015.
- Tloka, Jutta. *Griechische Christen. Christliche Griechen. Plausibilisierungsstrategien des antiken Christentums bei Origenes und Johannes Chrysostomos*. Tübingen: Mohr Siebeck, 2005.
- Torrance, Alexis C. *Repentance in Late Antiquity: Eastern Asceticism and the Framing of the Christian Life c. 400-650 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Torrance, Iain R. "God the Physician: Ecclesiology, Sin, and Forgiveness in the Preaching of St. John Chrysostom."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44 (1999), 163-76.
- Trentin, Lisa. "Exploring Visual Impairment in Ancient Rome." In *Disabilities*

- in Roman Antiquity: Disparate Bodies. "A capite ad calcem."* Ed. Christian Laes, C.F. Goodey, and M. Lynn Rose. Leiden: Brill, 2013. 89-114.
- Trompoukis, Constantinos and Dimitrios Kourkoutas. "Greek Mythology: The Eye, Ophthalmology, Eye Disease, and Blindness." *Canadian Journal of Ophthalmology* 42 (2017), 207-15.
- Underwood, Norman. "Medicine, Money, and Christian Rhetoric: The Socio-Economic Dimensions of Healthcare in Late Antiquity." *Studies in Late Antiquity* 2 (2018), 342-84.
- Van der Eijk, Philip J. *Medicine and Philosophy in Classical Antiquity: Doctors and Philosophers on Nature, Soul, Health and Disea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Verhoeff, Maria. "More Desirable than Light Itself: Friendship Discourse in John Chrysostom's Soteriology." Ph.D. diss.,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2016.
- Walker, Becky J. "'QUEEN OF THE VIRTUE': Pastoral and Political Motivation for John Chrysostom's Exaltation of Almsgiving." Ph.D. diss., Saint Louis University, 2018.
- Zincone, Sergio. "Essere simili a Dio: l'esegesi crisostomiana di Mt 5:45." *Studia Patristica* 18 (1986), 353-58.
- 배정훈. "천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제와 헛된 영광에 대한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상." 「갱신과 부흥」 28 (2021), 105-42.
- \_\_\_\_\_. "요한 크리소스톰과 철학-의학적 치료." 「갱신과 부흥」 26 (2020), 43-80.
- \_\_\_\_\_. "Status Quaestionis: 요한 크리소스톰 가난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신학논총」 36 (2020), 48-87.
- \_\_\_\_\_. "구제, 영혼의 치유, 구원: 요한 크리소스톰과 고대 철학적 치유의 기독교화." 「한국교회사학회지」 54 (2019), 167-204.
- \_\_\_\_\_. "구제와 영혼의 치유에 대한 존 크리소스톰의 사상 연구: 그의 마태복음 설교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88 (2018), 121-49.
- \_\_\_\_\_. "희망과 두려움의 수사학: 존 크리소스톰의 구제담론에서 보상과 심판의 영혼치

유적 역할.” 『장신논단』 50 (2018), 67-93.

J.N.D. 켈리. 『고대 기독교 교리사』. 5판. 박희석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Abstract]****Diseased Eyes of the Soul : Almsgiving and Glaucoma  
Treatment in John Chrysostom's Thought**

Jung Hun Bae

(Kos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hurch History)

Recently, scholars have attempted a new wave of study, paying attention to the metaphor of disease and treatment that frequently appears in the writings and sermons of John Chrysostom (C.E. c.349-407). They discovered that behind this metaphor there is a tradition of 'doctor of the soul' which has continued in Greco-Roman philosophy and medicine, and traced how John used it. However, these studie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ancient philosophical therapy on the formation of John's thought of almsgiving. Given that there was no church father who appealed for help for the poor as much as John in late antiquity, it can be assumed that psychagogy in ancient philosophy and medicine which spread throughout his thought was also related to his idea of cha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 detail John's ancient philosophical-medical understanding of Christian sharing.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focus on his mention of eye disease and the treatment of the soul. John leads his congregation, whose hearts have been blinded by greed for material things, to the Divine ophthalmic hospital. This paper analyzes John's 20th homily on the Gospel of Matthew (*In Matthaenum homiliae* 20). According to John, covetousness is a disease of the eyes of the soul, that is glaucoma. This disease is by no means mild. Just as we can do

not anything if we are blinded, so too are the eyes of the soul blinded. If, however, we have a willingness to share, this can be cured. Sharing is a powerful spiritual eye operation, couching operation. Everyone can get it without any burden. John's discourse on the glaucoma of the soul and its treatment is quite systematic and replaces the medicalized discourse and practice of secular philosophers and physicians.

**Key Words:** Early Christianity, John Chrysostom, Eyes of the Soul, Glaucoma, Couching, Almsgiving

